

AI 시대 인간 몸 경험과 무용교육의 의미 탐색 -기독교적 인간 이해를 중심으로-

요약문

이은형 명지대 강사

요 약

최근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 및 기술 융합형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AI 활용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이 강조되면서 무용교육 또한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예술교육과 무용교육이 본래 지니고 있는 인간 중심적 가치와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용은 인간의 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예술이며, 움직임을 통해 감정과 생각, 존재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인간은 춤을 추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몸과 존재를 경험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무용은 언어가 아닌 몸의 움직임을 통해 감정과 생각 및 상황을 표현하고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과 공감, 관계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무용교육은 단순한 기능 습득이나 움직임 교육을 넘어 인간 존재와 인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몸 기반 예술교육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기독교적 인간 이해에서 인간은 몸과 영혼이 통합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관계적 존재로 이해된다. 즉 인간의 몸은 단순한 물리적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경험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통로로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성경 속 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와 교류하는 표현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인간의 몸을 통한 움직임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AI 시대 인간 몸 경험의 변화 속에서 무용교육이 지니는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기독교적 인간 이해의 관점에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무용교육이 인간의 감각과 감정,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하는 인간 중심의 예술교육으로서 어떠한 교육적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AI 시대의 무용교육은 단순한 기술 활용 교육을 넘어 인간의 존재성과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교육적 실천으로서 지속적인 가치와 필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어: AI시대, 무용교육, 몸 경험, 기독교, 기독교적 인간 이해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AI 시대 인간 몸 경험과 무용교육의 의미 탐색 -기독교적 인간 이해를 중심으로-	발표자	이은형
		논찬자 (소속)	이선경 (명지대/ 교수)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인간의 삶 전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술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망 속에서 예술의 본질과 무용교육의 지향점을 재성찰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인간의 ‘탈신체화(Disembodiment)’ 현상에 주목하여, 무용교육을 단순한 기능 전수를 넘어선 ‘존재론적 회복의 장’으로 규명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한 접근이라 판단됩니다.

연구자는 무용교육의 본질을 ‘몸’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감정의 현상학적 표출과 타자와의 관계 맺기, 공동체적 가치 구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기독교적 인간 이해의 관점을 도입하여 인간을 ‘신체와 영혼이 통합된 전인적 존재’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관계적 존재’로 정의한 부분입니다. 이는 무용교육의 가치를 단순한 심미적 차원을 넘어 형이상학적이자 신학적 층위로 확장시킴으로써, AI 시대에 도구화되기 쉬운 신체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교육적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연구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무용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체감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가 보완된다면 연구의 외연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구자가 제시한 ‘인간 존재성’과 ‘공동체성’이라는 추상적 가치가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발현되는지, 학습자의 내면적 변화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현장의 실천적 지혜와 결합하여 더욱 깊이 있는 설득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에게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연구자께서는 AI 시대 무용교육이 ‘인간다움의 회복’이라는 교육적 사명을 지닌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자께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례 중, 기술 중심의 교육 환경과 대비되는 ‘무용만이 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인간적 변화의 순간’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험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본 연구는 무용을 ‘몸 기반 예술교육’으로 정의하며 음악, 미술, 연극 등 타 예술 교과 역시 신체를 활용하지만 무용은 ‘신체 그 자체가 곧 매체이자 목적’이라는 고유성을 지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예술 분야와 비교했을 때, 무용교육만이 갖는 ‘신체적 현존’의 차별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AI 시대의 학습자에게 왜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